



21세기 과학기술인의 요람 될 사이언스 플라자

올봄 착공을 눈앞에 둔 사이언스플라자

한국의 과학기술인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한국과학기술회관(이하 회관)이다. 그 회관이 확장되는 가칭 사이언스 플라자(구 북지 콤플렉스) 건립사업이 드디어 올봄에 착공을 앞두고 있다. 사이언스 플라자는 설계도면 변경을 비롯해 5년 넘게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당초 계획은 1985년에 건립된 과학기술회관의 낡은 별관을 철거하고, 회관 본관에 수평으로 연결하여 증축하는 형태로 설계됐었다 [건축 연면적(16,000㎡), 건축 면적(960㎡), 지상 11층, 지하 5층].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확장·증설하는 건축사업인 관계로 도시계획 주무기관인 서울특별시와 강남구청으로부터 용적률 확대 승인을 받는 것이 선결 과제였다. 과총과 회원단체의 노력에 힘입어 2014년 12월 종래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이루어져, 용적률 282%에서 400%로 상향 조정되었다. 다만 부지면적의 15%를 서울특별시에 공적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고, 기부면적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은 서울특별시가 갖는 조건으로 협의가 완료되었다.

당초 수평증축에서 통합신축계획으로 설계 변경이 되기까지

2016년 6월 사이언스 플라자 계획에 대한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원래 설계에 대한 중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설계도면 자체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됨으로써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되었

다. 제기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설계상 본관의 지반에 근접하여 지하암반을 20m 깊이로 굴착하게 되어 있어, 건설과정에서 지하층 없이 지어진 본관의 지반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된다.

둘째, 본관에서 비스듬하게 불과 2~8m 떨어진 거리에 같은 높이로 건물을 짓게 되어 있어, 그로 인한 본관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로 본관 건물의 이용 가치가 떨어진다.

셋째, 본관과 연결하여 짓게 되어 있어, 계단과 엘리베이터 등이 중복 설치될 뿐만 아니라, 층고가 낮아 최신 설비 확충이 제한되는 등 건물 활용에 결함이 생긴다.

넷째, 부지 여건상 신축 건물의 폭을 12m 내외로 건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물 내부 공간의 활용성이 떨어지고, 본관에 붙여서 수평 증축하게 되어 있어 향후 본관의 재건축 시에 공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전체 회관 건물 이용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된다.

요컨대 본관에 연결하여 사이언스 플라자를 짓는 원래 설계도면은 회관 전체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관은 1976년에 준공된 지하 1층, 지상 11층, 연면적 6,700㎡의 노후한 건물로서, 내구성이 떨어지고, 안전도와 활용 측면에서 개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특히 본관은 지하층이 기계실 용도로 건설되어 1개 층 중 절반만 건축되었기 때문에, 본관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연결해서 신축 건물을 짓는 경우 해당 부지의 지하 활용은 거의 불가능하



글_곽결호 | 경화엔지니어링 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khkwak1946@hanmail.net

연남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후 UNESCO-IHE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석사학위, 한양대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건설교통부 공무원을 거쳐 환경부 차관, 환경부 장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을 지냈고, 학회 활동으로는 대한토목학회 회장, 한국지반환경공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과총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 기존 수평증축 계획(좌)에서 변경된 통합 신축 계획(우) 평면도

다는 등이 걸림돌이었다.

이런 논란 끝에 2017년 3월 김명자 과총 회장이 취임한 뒤 꾸려진 건설위원회를 주축으로 이들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치게 되었고, 결국 사이언스 플라자 건립사업 계획이 변경되기에 이른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의 과학기술계의 교류의 장소인 백년대계(大計) 사업이라는 상징성 차원에서도 효율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본관과 별관을 함께 철거하고, 신관과 조화를 이루는 정방형의 반듯한 통합신축건물을 짓는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9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수평증축계획에서 통합신축계획으로의 변경 승인을 얻게 된다.

이처럼 기존의 <수평증축> 설계로부터 미래지향적인 <통합신축>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건축연면적(25,000㎡)은 당초(16,000㎡)보다 9,000㎡ 늘어났고, 층 수는 지상 11층, 지하 4층으로 결정되었다. 건립사업비는 불가피하게 당초 250억 원(+α)에서 486억 원(+α)으로 증액되었다. 수차례 건설위원회와 전문가 회의를 거친 끝에 공사 시공 방식으로는 ①기존 신관과 회의장을 사용하면서 건축공사를 병행해야 하고, ②비용-효과적으로 시행착오를 줄여 공사 기간 지연을 차단해야 하고, ③강남 도심지역 내에서 대규모 암반굴착 공사를 해야 하는 등 건축 상의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

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관계부처 심의와 협의를 거쳐 어렵게 조달청의 계약 승인을 얻었다.

상호이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영구사용권을 둘러싼 수십 년의 갈등을 해소하고 본원적 합의안 도출

건설계획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된 것은 70년대부터 난제였던 본관의 영구사용권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와 해소 방안이었다. 통합신축계획으로의 변경 승인 획득에 못지않게 긴 시간과 정성으로 대화와 소통에 의해 풀어야 했던 민감한 사안이었다. 간단히 요약하면, 과총은 1976년 회관 본관 건립 당시 일부 건설비용을 조달하고, 과학기술계의 동참을 유도할 목적으로 건립 기부금 성격으로 일부 투자금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사무실 공간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기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바 있었다. 70년대 과총의 투자조건에 응하며 영구사용권을 인정받아 입주해 있던 단체는 26개로서, 당시의 문건으로는 영구사용권이라는 쟁점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상태였다. 이번 협의과정에서 당초 26개 입주단체 요구는 “과총이 존속하는 한 무한한 영구적 사용권을 보장받아야 한다”였고, 그와 다른 자문의견은 “당해 건물의 멸실과 함께 그 사용권도 종료된다”는 유권 해석이 첨예하게 맞서서 조정이 쉽지 않았다.

과총의 회원단체를 위해 일해야 하는 과총으로서는


70년대 과총 본관 건립 당시의 이들 26개 단체의 기여를 존중하는 한편, 당시 100여 개 회원단체로부터 현재 600여 개 단체로 확대된 현실에서 다른 회원단체들의 의견도 고려해 과총 회원 전체의 합치된 의견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는 고충이 있었다. 이런 국면에서 과총 회장단은 끈질긴 개별 대화와 그룹 대화를 거쳐 영구사용권 보유 회원단체와 과총 전체 회원을 대표하는 양측의 위원으로 전담 TF를 구성하고, 인내와 협력을 요하는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치게 된다.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외부의 갈등 조정에 의존하는 불행한 사태로 번지지 않고, 과학기술계의 합리적 논의와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수십 년 간 풀지 못한 난제를 해결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다.

최종 합의 내용의 골자는 영구입주라는 불확실한 개념을 정량화하여, 70년대 본관 입주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사용 기간을 포함하여 99년간의 사용권에 대해 양측이 합의한 것, 그리고 그 사용 기간 이후에 반납할 경우의 기준을 현시점에서 설정하고, 건립기금을 보증금으로 인정해 반환하기로 합의한 것 등이 골자였다. 근거서류도 미비한 상태에서 서로의 이해가 상충되는 해묵은 이슈를 풀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더욱이 합리적 대화에 의한 타협보다는 막무가내 투쟁을 앞세

우는 오늘날의 우리 현실에서, 서로 승자가 되는 해법을 합의로 도출해낸 것은 과학기술계의 저력과 합리적 사고의 결실이라 생각한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일해주신 양측의 위원과 학회 임원진, 원로 선배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 조정 사례가 역사적 기록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한다.

4차 산업혁명 선도할 혁신 클러스터 · 플랫폼 될 것

클러스터가 물리적으로 인접한 기업과 기관 등의 연결된 집단을 의미한다면, 지리적으로 강남 요지에 건립되는 사이언스 플라자는 학회, 연구기관, 연구지원기관, 과학기술 행정기관, 과학기술 관련 협회와 단체, 창업 기업 등이 모여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요람이다. 그렇다면 수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올봄 착공을 앞둔 사이언스 플라자가 21세기 과학기술혁신의 상징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과총의 바람이다. 과학기술계의 대국민 소통, 과학기술인의 지식·정보 교류, 창업 생태계의 센터, 국제회의장 등 다양한 공간적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강소 혁신 클러스터 기능은 물론 과학기술계의 4차 산업혁명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교류의 장이 되도록 건설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와 응원이 절실하다.

G8 국가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국가 R&D 예산이 20조 원을 돌파한 2019년 새해, 다시금 과학기술혁신이 국가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우리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막중한 역할을 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21세기 과총의 존재 이유와 이미지를 새롭게 혁신할 사이언스 플라자가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과학기술 요람으로 당당한 위용으로 준공될 날을 기다린다. 



▲ 사이언스 플라자 조감도